



무주군 아산면 농촌지도자회 장학금 기탁

무주군 아산면 농촌지도자회(회장 공환규)가 10일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에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100만 원을 쾌척했다.

공환규 회장은 "지방이란 어려운 교육환경에서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더 노력하는 농촌지도자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무주 미래세대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무주의 미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면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매년 영농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거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관·기업 상생발전 기틀 만들어'

완주군 장애인 연합회·우리마을 행복센터 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 장애인 연합회(회장 김덕연)와 우리마을 행복센터 협동조합(대표이사 이성윤)은 지난 10일 완주군 장애인 연합회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체와 기업간의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동시에 완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협약을 했다.

또한, 지역내 문화 및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욕구에 결과 관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내 체계적 지원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호 인적, 물적 지원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장애인 연합회 김덕연 회장은 협약에 있어 현재 연합회에 대한 지역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



는 말과 함께 이번 우리마을 행복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장애인들도 교육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혀서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로도 발굴해 가며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건강 한 지역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연합회가 앞장서서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마을 행복센터 협동조합도 앞으로 꾸준히 지역내 사회복지와 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노력하고 여러 기업들 간 연합을 통해 기관과 협업을 하며 더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갈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이명진 진안군의원,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

진안군의원 이명진 의원(나 선거구)은 지난 10일 진안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자녀들과 함께 뜻을 모아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명진 의원은 "학창시절 형편이 어려웠지만 장학금 덕에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진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안군의원 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활발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진안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아이들과 군민들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진안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진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모교인 부귀초와 부귀중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왔으며, 35년의 성실한 공직 생활을 거친 후 2022년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민원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민생소통과 민원해결에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직무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10일 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신규 임명 의용소방대원 3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및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2월 1일자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17개대로 남상대원 14명, 여성대원 22명 총 36명이며 관내의 화재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재난현장 보조업무 수행,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안전과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소방서에서는 임명장 수여식 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초 소양 교육과 전문성 있는 현장활동을 위한 심폐소생술교육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튜버 짜잔시, 고향 무주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무주 출신의 유튜버 짜잔씨가 지난 10일 무주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에 동참했다.

짜잔씨는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라며 "첫걸음을 시작한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을 위한 의미 있는 기부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전해주시는 고향 사랑이 보람과 긍지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예수병원, 익명 기증자 희망의 등불 100대 기증

예수병원은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병실을 밝히는 등불 100대를 지난 10일 기증받았다.

익명의 기증자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기증 생각을 전했다.

예수병원은 패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증품을 전 병동에 전달해 예수병원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비치할 예정이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병원 병실과 환자들 마음까지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기증해준 익명의 기증자의 사랑에 감사하다"며 "기증자의 예수병원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병실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의료서비스·환자안전 관리 최상급 병원 인정

전북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유효기간은 2023년 2월 7일부터 2027년 2월 9일까지 4년간이다.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아 의미가 매우 크다.

인증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은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전북대병원은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관리 수준이 최상임을 다시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4주기 인증조사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과 조직안전 관리 운영 등 4개 영역 512개 조사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조사에서 의료서비스 수준, 환자 안전 관리 및 의료 질 향상, 진료체계 등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증필수항목 12개 기준을 완전히 달성해 최고등급의 결과를 받았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참여한 조사위원들은 총평에서 "이번 평가를 통해 전북대병원이 환자에 대한 애정과 단합된 열정으로 사람 중심의 의료 선도를 하고 있는 병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지역 책임병원의 역할을 넘어 국내의 의료 선도를 선도하는 글로벌 병원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과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순창소방서, 외국인 노동자 화재안전교육 실시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9일 순창군에 위치한 토박이순창식품 한국센터 공장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및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외국인 노동자 20명을 대상으로 △화재 시 신고요령 및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5개 국어로 번역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안내 및 홍보물 배부 등 비상 상황 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꼭 필요한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완산소방서, 혈액수급 위기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전주완산소방서는 지난 10일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 완산의용소방대원 등이 마음을 모아 '생명나눔 사랑의 릴레이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사랑의 헌혈 운동은 혈액수급이 급감함에 따라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전주완산소방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 일반시민 등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에서 버스 내부 방역, 개인손소독 및 체온측정 등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이웃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해 혈액수급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장은 "여러 직원들이 참여한 헌혈에 소중한 생명을 위한 가치 있는 일이 되길 기대한다. 참여해준 의용소방대원, 일반 시민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향군, 조촌동민회에 사랑의 선물 전달

전주시재향군인회는 향군 사무국에서 전주시 조촌동민회에 '향군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향군 사랑의 선물은 조약현 고령실업대표로부터 춘추용 기능성 남파 고급내의 200벌을 추가로 지원받아 마련한 것으로 향군회원 가정과 차상위계층, 불우이웃, 재가복지센터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전달행사를 진행했다.

조촌동민회(회장 윤용철)는 50여 명의 정예화원으로 구성되어 코로나시기에는 방제 및 소독작업, 어려운 이웃돕기, 영농활동을 병행하며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전주시농민회를 대표하는 농민회이다.

전주향군(회장 김용덕)은 전주향군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고령실업(대표 조약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화재 취약 사각지대 발굴 예방 안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형철)가 화재 취약 사각지대의 발굴로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해 안전을 기한다.

최근 몇 년간 걸친 감염병 유행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IT 기술의 진보에 따라 매장을 관리하는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손님이 알아서 계산하는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무인 사진관, 무인세탁소, 코인노래방, 인형뽑기방, 스터디 카페, 밀키트 판매점 등 무인 점포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무인 점포 증가 추세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 무인 점포 화재 안전을 위한 시책에 따른 것으로 '무인 점포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보급 기준 설치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전기시설 안전 점검 이용자 화재 안전의식 조성 목적 팸플릿 비치 및 배부' 등을 실시했다.

특히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인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인 점포 영업주와 관계인을 비롯해 이웃한 업소의 영업주를 포함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형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는 매장 관계인의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만큼 무인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중요하다"라며 "소방서에서는 무인 점포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전 환경조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해빙기 긴급구조 대응 대책 추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형철)가 지난 8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한 달간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른 수난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긴급구조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해빙기는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녹거나 깨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얼었던 수분이 녹는 등 수난사고나 붕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2023년 해빙기 긴급구조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해빙기 긴급구조 대응 대책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저수지 및 하천 등 위험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 빙상사고 위험지역 구명환 로프 등 구조장비 일체 정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대처요령 홍보 강화, 인명구조 훈련 및 긴급구조 대응 태세 확립' 등이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빙기 얼음 위에서 얼음낚시 및 빙상놀이 금지, 가스 호스 이완 현상 등에 따른 가스시설 점검 철저, 주변의 축대·옹벽 균열 지반침하 등 확인, 낙석위험 구간 서행운전 등 사전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다.

전주덕진소방서 노점영 방호구조과장은 "해빙기는 기온상승에 따라 얼음 빠짐 사고, 붕괴 사고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해빙기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인사

새민금개발청

- ◇과장급 ▲대변인 이범 ▲운영지원과장 한상환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장 박종민 ▲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장 윤용태 ▲개발전략국 교류협력과장 남궁재용